

## 장애아동 가족의 빈곤유형과 복지정책

정영숙 \*  
이장홍 \*  
홍강미 \*  
이영미 \*

### I.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 경제는 과거 수십년 동안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였고 국민 일인당 소득도 상당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 번영의 이면에 여전히 경제발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며 생활하고 있는 다수의 빈민들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국가의 절대적인 부가 충분할 만큼 축적되어 전국민이 자원을 풍족하게 소유하고 있고 빈곤퇴치를 위한 국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빈곤 문제는 사회의 중심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한국은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절대적 빈곤층도 급증하지만 상대적 빈곤과 주관적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계층이 더 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빈곤개념이 절대적 빈곤에서 점진적으로 상대적·주관적 빈곤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빈곤에 대한 개념규정의 전환과정을 살펴보면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경제성장기의

- 
-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가정복지전공 부교수
  -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부 유아특수교육전공 교수
  -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 재활학과 교수
  -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정신과 교수
  -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빈곤은 주로 국민 대다수가 겪었던 물질적 재화의 부족에 관한 것으로서 절대적 빈곤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물질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는 1990년대 이후에는 사회적 빈곤이나 심리적 빈곤으로 인해 계층간 위화감과 박탈감이 심화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삶의 질의 결핍감, 문화적 재화에 대한 접근의 부족, 자아실현의 어려움 등과 같은 비물질적인 결핍이 사회적 논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김성천, 1997). 이처럼 빈곤은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을 함께 내포하고 있으므로 현대사회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 인해 절대적 빈곤이 얼마간 해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사회구성원과의 비교에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상대적 빈곤이나 주관적 빈곤에 대한 비중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빈곤계층 중 사회적 취약성을 보다 많이 내포한 집단들, 예를 들어, 편부모가족, 노인가족, 소년소녀가장, 장애아동 가족 가운데 빈곤장애아동 가족이 경험하는 절대적 빈곤 뿐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1990년에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의 극빈층 비율이 비장애인가족은 28.2%이나 장애인가족은 이의 2배인 56.1%나 되며,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월소득 150만원 이상인 가구비율은 장애인가족이 4.1%로 비장애인가족(8.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정소연, 1995, p.75, 재인용). 또 극빈층으로 내려갈수록 장애인가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장애가족과 빈곤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지만 현재 빈곤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빈곤문제에 있어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특히 이들 빈곤장애아동 가족에게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는 장애아동이 출현하는 가족의 다수가 빈곤계층에 속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과 가족성원 가운데 장애인을 포함함으로써 일반 빈민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게 되므로 이들은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의욕을 상실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이처럼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정책결정자들이 경제적 지원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도 이들 가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김성천, 1997).

장애아동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매우 다양하나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경제적 문제라는 점과 과도한 장애자녀의 추가지출은 타항목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쳐 가족 내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점이 선행연구(김윤모, 1998; 김남숙, 1997)에서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소득수준을 넘어선 과다지출은 장애아동 가족을 빈곤계층으로 전락시키고 상대적 빈곤층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들 가족에 대한 대책방안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한다.

장애아동 가족의 빈곤문제는 가족성원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는 절대적 빈곤의 문제도 지적될 수 있지만 사회구성원으로서 타인과 비교되어지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상대적 빈곤감과 가족이 나아가는데 필요한 최저생계비로 추정된 주관적 빈곤감이 이들 가족생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다시 말해, 가족 내 장애아동의 출현으로 인한 교육 및 양육불안감과 소득의 파행지출 가능성에 따른 경제적 위기감 등이 가족구성원들에게 파급되면 장애자녀를 둔 단위가족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복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들 빈곤장애아동 가족의 경제적 문제는 단순한 물질적 요소의 결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요인으로 인한 가족해체의 복합적 문제로 확대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빈곤장애아동 가족의 성원들이 경험하는 절대적 빈곤 뿐 아니라 상대적 빈곤과 주관적 빈곤수준을 파악하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방법을 모색하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 근거를 지닌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경제적 문제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도 실제로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이 빈곤가족에서 더 빈번히 출현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빈곤장애아동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나 빈곤실태를 다룬 연구는 대단히 미흡한 수준이다. 장애아동 가족이 안고 있는 경제적 문제는 그들 스스로가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가족성원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어 사회적 지원 없이는 원만히 풀어나갈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그러므로 개별적 문제와 상호 보완되어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외부지원체계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장애아동 가족이 경험하는 빈곤은 전반적인 소득수준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가족성원 가운데 장애인을 포함함으로써 경험하는 부정적인 사회적 환류(feed-back)로 인하여 사소한 자극에도 민감해지는 취약성을 갖고 있으며 준거집단과의 비교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영역일지라도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들이 직면하고 인지하는 여러 유형의 빈곤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심리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느끼는 상대적·주관적 빈곤감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 심각할 수 있으므로 이들 가족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정책이나 제도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의 출현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는 장애아동 가족의 절대적 빈곤과 준거집단과 비교한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에 대한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이들 유형별 빈곤이 장애아동 가족의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이들 가족에 대

한 실증적 자료를 근거로 복지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빈곤에 대한 개념

빈곤은 인간의 생물학적 생존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 자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교육 및 문화적 측면에 대한 기본적 욕구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빈곤은 물질 자원의 결핍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교육의 기회, 의료의 기회, 사회적 이동의 기회 등과 같이 가치분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포함하는 동시에 개인의 성취동기, 열망수준, 자아실현 등의 심리적 차원과 관련된 박탈과 문화적 가치로부터의 소외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빈곤은 특성과 주안점에 따라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 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은 빈곤에 대한 가장 오래된 정의 방법으로 그 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용해온 개념이다. 절대적 빈곤개념은 빈곤을 생존을 위한 최저한의 물질적 수용의 결핍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신체적 건강과 노동력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재화의 결여와 관련지어 가족의 기본적 생계에 필요한 생계비에 기준을 두고 있다. 절대적 빈곤에 대해 처음 언급한 학자는 Rowntree로 신체의 대사를 위해 유지할 정도의 최저한의 필수품을 획득할 수 없는 상태를 절대적 빈곤이라 정의했다. 그 외에 빈곤개념을 규정하고자 했던 Orshansky, Oster 등의 연구가 있다.

미국은 빈곤선(poverty income guidelines)과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데 Orshansky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 방법은 3인 이상가구의 엔젤계수가  $\frac{1}{2}$ 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최저한의 식비를 계산한 뒤 여기에 3을 곱하여 계산한다. 미국 농림부(USDA)는 이 방법을 적용하여 가족구성에 따라 4 종류의 표준식단(liberal, moderate, lowest-cost, economy)을 구성하고 그 중 절약형 식단(economy food plan)에 소요되는 식비를 계산한 뒤 엔젤계수의 역수를 곱하여 최저생계비를 추정하였다(Magrabi et al., 1991). Magrabi 등(1991)은 인간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식품, 주거, 피복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결여된 상태를 빈곤으로 보았다.

절대적 빈곤개념은 생활수준이나 최저생활기준을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시대적·사회적·문화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적용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생존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식료품이 섭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이나 개인적 성향이 간과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빈곤은 빈곤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대두되는 개념이다.

## 2) 상대적 빈곤

Townsend(1979)는 '개인이나 가족의 자원이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평균적 개인이나 가족의 자원보다 현저히 미달한 경우'를 빈곤으로 정의하였다. 즉 그 사회의 평균소득수준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을 빈곤층이라 정의함으로써 빈곤을 불평등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그의 기준에 의하면 가계소득수준이 평균소득의 50% 이하일 때는 극빈층, 80% 이하일 경우에는 빈곤층으로 정의하였다. Townsend는 주장하기를 절대적 빈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리적 혹은 생존적 필요라는 개념은 현대의 경제생활 속에서는 더 이상 타당성이 없는 개념이라고 보고 그것보다는 사회적 필요나 심리적 필요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간주한다.

Townsend는 인간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며 중요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빵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봄으로써 '절대적 필요'라는 개념 대신 '필요의 사회적 결정'(social determination of needs)이란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어떤 사회의 생활필수품이란 시간적, 공간적 상대성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통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관습 또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빈곤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처음에는 소수의 욕구나 중에는 다수의 욕구로 변하는 경우도 흔히 있으므로 빈곤을 설정할 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이나 전화도 처음에는 소수 부유층의 전유물이었으나 지금은 만인의 필수품이 되었다.

빈곤개념이 현대에서는 보다 광의의 상대적 박탈(relative deprivation)개념으로 대체되고 있다. Townsend는 상대적 박탈을 '개인이나 가족이 속한 사회에서 관습이 되어 있는 수준에 미달되거나 물리적 기준이 결핍되어 있고 가족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라고 정의하였다. 상대적 박탈의 개념에 따르면 박탈의 범위가 넓어지며 따라서 빈곤개념에 기초한 정책적 함의와 빈곤대책도 달라진다. 빈곤은 상대적 박탈에 의해서만 객관적으로 정의될 수 있고 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 박탈은 빈곤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 경험하는

생활상태의 수준에 관련된 개념이고 빈곤은 자원의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된 개념이다. 또 자원이 평균 수준이하로 감소하면 일반적인 생활양식에의 참여가 급격히 떨어지는 자원경계선(threshold of resources)이 생기는데 이 경계선 이하가 박탈상태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상대적 박탈은 상대적 빈곤의 개념인 자원부족 뿐 아니라 자원부족에 원인을 둔 의, 식, 주, 가구집기, 환경과 거주위치 등의 물질적 박탈과 취업할 권리, 가족활동, 지역사회에의 통합, 사회기관에의 공식적 참가, 여가, 교육 등의 사회적 박탈로 구분할 수 있다. 빈곤의 구성개념은 소득, 자산, 소비이며, 박탈의 개념은 빈곤개념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생활양식에의 참여가 포함된다.

Townsend는 빈곤개념을 사용하는 데 있어 현금소득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충분하다고 간주하고 상대적 박탈의 상태를 파악해야 하며,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절대적 빈곤문제보다는 상대적 빈곤문제로 주의가 돌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보고 있다. 빈곤은 분명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빈곤이 결핍이라는 측면과 불평등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절대적 빈곤은 결핍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고, 상대적 빈곤은 불평등이라는 측면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어느 측면을 더 강조하는가에 따라 두 가지 접근 방법으로 구분되며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반드시 옳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람들이 느끼는 물질적 행복은 소득수준에도 의존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 상대적인 지위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지므로 상대적 빈곤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 3) 주관적 빈곤

빈곤이란 결국 사람들의 복지에 관한 것이므로 자기의 생활상태에 대해서 각자가 가지는 느낌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과거에는 절대적 빈곤개념에 주의를 집중하였으나 최근에는 경제학자들이 빈곤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그리고 제3단계의 빈곤개념으로 주관적 빈곤에 대해 점차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주관적 빈곤접근에는 최저한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소득수준을 파악한 뒤 그 값을 평균하여 빈곤선을 구하는 방법이다. 미국의 사회학자 Rainwater는 “4인 가족이 빠듯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저한의 소득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1946~1969년까지 검토한 결과 그 대답이 그 해의 가구당 평균소득의 46-58% 범위에 들어 있으며, 그 평균치는 52%라는 것을 밝혔다. 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빈곤선이 사회전체의 생활수준과 더불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일반 시민들이 상대적 빈곤의 개념에 가까운 관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자신의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값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의 주관적 접근으로서 보다 진보된 추정방법은 van Praag, Hagenars 등의 학자들이 개발하였는데, 이 방법은 다른 가구의 최저생계비에 관해 묻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가구의 경우에 대해 대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라이덴 방법으로 빈곤선을 추정할 경우에는 각 가구에 대해 다음의 질문이 적용된다. 당신의 가구에서는 얼마의 소득이 있다면 빠듯이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라는 방식으로 묻는 것과 그 뒤에 나온 질문양식은 소득에 몇 개의 단계를 두어 우리 집의 경우 소득이 얼마라면 '넉넉하겠다' '부족하겠다' '빠듯하겠다' 등으로 대답하게 하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추정해 내는 방식이다. 어느 방식을 취하든 주관적 빈곤의 추정방법은 조사대상자가 각자 자신의 생계비에 관해 대답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정보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들 연구자들은 이런 주관적 방법에 의한 빈곤개념이 절대적 빈곤이나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포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론적으로 보다 큰 타당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 2. 가족복지의 개념

장애아동 가족의 복지환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복지에 대한 개념이 먼저 정립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 자체에 대한 연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아동 가족의 복지를 규정하기 위한 복지 자체에 대한 개념형성을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복지' 혹은 '삶의 질'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학계도 그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국가와 사회의 모든 활동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복지를 증시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흐름인 동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당위적인 측면과도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복지의 정의에 대한 관점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첫째가 복지수준을 객관적인 삶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관점인데, 대부분 많건 적건 일정양의 객관적 사회지표들을 선정하여 복지수준을 언급하고 있다 (Slotje et al, 1991). 둘째는 그것을 주관적, 심리적 만족감으로 규정하는 입장으로서 삶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정서적 평가를 포함하는 주관적 만족감을 복지로 본다(Andrews & Withey, 1976; Nussbaum & Sen, 1993). 셋째는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을 포괄하여 정의함으로써 앞의 두 입장을 절충하는 관점이다(정구현 외, 1994; Lane, 1994 등).

장애아동 가족이 물질적·심리적으로 바라는 좋은 또는 행복한 상태의 총체가 복지라고 할 때 잘 산다는 것이 그러한 복지의 증진일까? 또한 잘 산다고 하는 문제를 주관적인 느낌으로

평가하는 경우와 객관적인 조건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어떻게 다른가? 보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과연 물질적인 풍요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결국 복지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규정을 통해서만 대답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립되지 않고는 복지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노력도 적절성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지에 대한 관심이 늘 있어 왔지만 복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나에 관해서는 견해가 다양하다. 최근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그것을 삶의 질과 연계시켜 다루거나 아니면 좀 더 서술적인 형태의 질문들로 전환시켜 다루고 있다. 즉 복지를 삶의 주체인 개인의 삶의 질로 보고 그러한 개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이 바로 복지수준을 높이는 것이라 보는 경우도 있고(Sen, 1993), 복지문제를 “어떠한 여건들이 살기에 좋은 조건들을 제공해 주는가?”, “무엇이 삶을 그 삶의 주체인 개인에게 좋게 하는가?”, 혹은 다소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무엇이 삶을 가치 있게 하는가?”라는 질문들로 전환시켜 다루고 있는 경우도 있다(Scanlon, 1993). 이러한 질문들 역시 그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개인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제기된 것들로 볼 수 있으며, 단지 세 번째 질문은 가치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좀 더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나 가족복지의 실체를 규정짓는 내용 및 그 요소들이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 ‘복지’(welfare, well-being)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그것이 ‘만족하거나, 행복하거나, 건강하거나, 혹은 번영하는 상태’ 혹은 ‘만족, 행복, 번영 등과 관련하여 잘 되어 가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그렇다면 삶의 질을 개인의 복지를 규정짓는 실체적 내용으로 보고 개인의 복지를 분석적인 수준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관념으로서의 역할을 갖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애아동 가족의 근원적인 목표는 장애아동을 포함한 가족구성원들이 오늘 보다는 내일이 나은 상태 즉 복지를 구현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바램은 개인 및 가족과 국가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로 정착되고 있다. 복지라는 개념은 개개인의 생활을 비롯하여 인간적 삶의 조건을 포함한다. 즉 한 인간의 삶은 살아있는 존재인 생명체로서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개인간의 상호작용은 물론 개인이 속한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의미한다. 그리고 삶의 질에서 ‘질(quality)’은 바람직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수준은 일정시점에서 개인 및 집단의 욕구에 대한 충족의 결과로서 인지된 상태라고 규정함으로써 복지욕구에 대한 충족의 관계로 파악되는 효용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복지수준은 삶의 여건과 관련영역에 대한 개인의 인식결과이고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관련영역들의 만족도와 함수관계에 있게 된다. Slottije 등 (1991)은 복지는 개인이 생활의 경험과 상황을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상황과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주관적인 인식이라고 정의하고, 복지수준이 경험과 상황을 필수요건으로 한 상대적인 개념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Sen(1993)은 복지수준이 인간이 주변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삶의 전반에 관한 주관적인 만족감이라 하였다.

### Ⅲ. 연구방법

#### 1. 자 료

먼저 장애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탐색조사를 실시하여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한 후 본 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자료는 자녀의 장애유형을 고루 포함하기 위해 비례층화표집을 적용하였고 1차 자료는 1998년 3~4월에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장애아동의 부모 242명을 대상으로 면접법과 질문지법을 병행하여 수집하였고, 2차 자료는 1999년 11~2000년 2월에 113명의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소득, 학력 등의 일반적인 사항, 경제생활실태,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 복지수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제생활실태와 관련된 요인은 경제문제경험도, 경제위기대처능력, 소득적정도, 장애자녀를 위한 추가비용과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이다.

#### 2. 척도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절대적 빈곤이란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후 그 수준에 미달될 경우를 의미한다. 절대적 빈곤선은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데 적용되는 오산스키(Orshansky) 방법을 토대로 하였다. 이 방법은 3인 이상가구의 앵겔계수가  $\frac{1}{2}$ 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최저한의 생계비를 계산한 뒤 여기에 3을 곱하여 빈곤선을 산출한다. 앵겔계수가 빈곤선 책정에 적용되는 이유는 식비와 소득이 뚜렷한 정적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Magrabi et al., 1991). 본 연구의 자료로 오산스키 방법을 적

용하여 설정한 빈곤선은 우리 나라의 공적부조인 생활보호제도를 위해 설정한 저소득 가구 아동의 빈곤기준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전체 가족들 중 27%는 빈곤계층에 속하고 그 나머지 가구는 비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상대적 빈곤과 주관적 빈곤을 측정할 수 있는 조사도구는 탐색조사를 통해 구성개념들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상대적 빈곤은 응답자와 응답자 가족이 속한 사회에서 경험하는 생활수준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떠한지를 알아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상대적 빈곤을 나타내는 항목들은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자녀교육, 교제, 교통·통신, 건강관리, 여가 및 문화생활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생활수준을 국민전체와 비교한 경우와 친구나 이웃 등과 같은 준거집단과 비교한 경우로 분리하여 측정하였고 이들 두 문항의  $\alpha$  값은 0.84이다. 상대적 빈곤을 나타내는 항목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훨씬 못한 편이다'가 1점, '훨씬 나은 편이다'가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관적 빈곤은 현재의 생활상태에 대해 응답자 각자가 가지는 느낌에 중점을 두고 대답하도록 하기 위해 각 응답자에 대해 1달 동안 '빚뚱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추정하였다.

복지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인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삶의 질에 대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불행하다→행복하다', '비관적이다→희망적이다', '지루하다→재미있다', '보잘 것 없다→가치있다', '공허하다→충만하다', '불만스럽다→만족스럽다'의 6가지 어의차이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그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상에 나타내도록 하여 6문항을 지수화하였다. 이들 문항들은  $\alpha$  값이 0.91로 나타났다. 분석방법은 먼저 기술통계를 적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빈곤유형별 결정요인 및 삶의 질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회귀함수에 포함된 독립변인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변인들 상호간의 상관계수표를 조사한 결과 모두 0.5이하로 나타나 이들 자료에 의한 회귀는 다중공선성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연구결과

조사대상 부모의 교육수준은 응답자의 과반수가 고졸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이 대졸로 전체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모의 결혼상태는 95% 정도는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나머지 5% 정도는 이혼, 별거, 사별 등으로 인해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상당부분은 빈곤계층에 편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5%의 가정 모두가 편모가족이며 편부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주택소유유형은 1/2 정도가 자가보유자이고, 가정의 주된 수입원은 94%가 본인이나 배우자의 근로소득이라고 응답하였고 나머지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월평균 소득은 170만원 정도이나 편차는 80만원으로 집단내 소득수준이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 경제문제의 원인

자녀의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은 반 이상이 '장애자녀의 치료교육비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나머지 49%는 '장애자녀를 돌보느라 취업을 할 수 없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이러한 응답은 양부모 가족에게서 보다 편모가족에게서 더 뚜렷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정상아동 가족에 비해 장애아동 가족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편모가족이 겪는 이중고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즉 제한된 소득으로 일반가정에서 지출하지 않는 치료교육비를 지출해야 할 뿐 아니라 장애자녀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경제활동도 제한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장애아동 가족의 문제가 구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말하면 소득수준을 넘어선 과다지출은 장애아동 가족을 빈곤계층으로 전락시키고 경제활동의 제한성은 이들 가족이 상대적 빈곤층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장의 실업이나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줄이기 힘든 항목에 대한 분포는 치료교육비가 7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식비로 1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피복비나 문화여가비와 같은 사치재에 대한 분포는 2%를 넘지 않고 있어 항목별 분포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장애아동을 가진 가정의 치료교육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큰가를 반영하고 있고 경제위기가 닥칠 경우 동 항목이 가계에 상당한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정상아동을 가진 가족과는 달리 장애아동을 가족구성원으로 포함한 가계에서는 치료교육이라는 항목이 필수재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가지출은 타 항목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쳐 가족 내 불평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소비항목들 간의 상충효과 및 유기적 관계를 고려할 때 과다한 치료교육비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것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타 항목의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한 가계가 치료교육으로 돌릴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치료교육비의 과다한 지출은 다른 지출항목에 대한 압박을 불러올 수 있고 그러한 부담은 장애아동 가

족의 경제적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표 1> 경제문제의 원인

항 목	백분율
자녀의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 :	
장애자녀의 치료교육비 때문	51
장애자녀를 돌보느라 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	49
경제위기시 가장 줄이기 힘든 항목 :	
치료교육비	70
식비	12
피복비	2
주거비	5
보건의료비	8
교통통신비	2
문화여가비	1

## 2. 빈곤유형별 결정요인

빈곤유형별로 각각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절대적 빈곤부터 살펴보면 사회계층은 부적인 관계를 그리고 경제문제경험도는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절대적 빈곤계층에 속할 확률이 적으며 경제문제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절대적 빈곤상태가 더 심화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학력도 절대적 빈곤과 부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절대적 빈곤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장애자녀를 위한 추가비용이 더 많이 지출될수록 절대적 빈곤상태가 더 심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대적 빈곤은 학력 및 소득과는 부적인 관계를 그리고 장애자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추가비용은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과 월평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장애자녀로 인한 추가비용과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클수록 상대적 빈곤감을 더 강하는 느낀다는 것을 말해준다.

주관적 최저생계비 수준은 사회계층, 장애자녀로 인한 추가비용, 소득 등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변인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계층과는 정적인 관계를 가지

고 있어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주관적 최저생계비 수준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자녀를 위한 추가비용 역시 정적인 관계를 보여 추가비용이 더 많이 들수록 주관적 최저생계비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월평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 최저생계비도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관적 최저생계비 함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가 0.61로 나타나 함수에 포함된 변인들이 주관적 최저생계비의 분산을 61%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빈곤유형별 결정요인

Model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
(Constant)	241.835*** (4.92)	0.735 (0.66)	-5.637 (0.13)
사회계층	-29.404*** (4.73)	0.201 (1.44)	11.216* (2.09)
경제문제 경험도	11.901* (1.96)	0.061 (0.45)	4.704 (0.91)
학력	-22.103*** (4.11)	-0.252* (2.12)	-1.859 (0.41)
연령	-0.355 (0.53)	0.010 (0.75)	0.349 (0.65)
장애자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3.111 (0.59)	0.004*** (3.08)	0.618 (0.15)
장애자녀를 위한 추가 비용	0.279* (1.99)	0.011*** (3.01)	0.400*** (2.84)
소득	-	-0.341* (-2.15)	0.784*** (11.21)
F	16.922***	6.476***	28.218***
R <sup>2</sup>	0.44	0.26	0.61

\*p<0.05 \*\*p<0.01 \*\*\*p<0.001

### 3. 빈곤유형과 복지와의 관계

삶의 질 또는 복지라는 개념은 경제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고 가계의 여러 가지 투입물은 궁극적 산출물인 복지로 전환되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인이나 가족은 수많은 욕구와 욕망을 지니고 있으며 그 중 많은 부분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모든 필요

와 욕구는 가족의 요구수준을 나타내는 생활표준과의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충족되는가에 따라 개인의 복지수준은 영향을 받는다. 가족의 삶의 질이나 복지수준을 측정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온 편이다. 이들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은 삶의 질이나 복지가 소득이나 자산으로부터 인지된 만족이나 행복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복지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빈곤과 같은 객관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상대적 빈곤이나 주관적 빈곤과 같은 주관적 요인들에 대한 평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인들은 서로 다른 비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은 가족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빈곤유형별로 복지수준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기 위해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하고 세 가지 유형의 빈곤 즉 절대적, 상대적, 주관적 빈곤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들 세 유형 모두가 가족복지 수준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복지의 분산을 69%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유형의 빈곤은 복지수준과 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빈곤이 심화될수록 복지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베타계수(B)로 변인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세 유형 중 절대적 빈곤이 가족복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주관적 빈곤이고 상대적 빈곤의 영향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 빈곤유형과 가족복지와의 관계

Model	B	$\beta$	t
Constant	4.295***		11.957
절대적 빈곤	-0.007*	-0.416	-4.103
상대적 빈곤	-0.112***	-0.103	-1.544
주관적 빈곤	-0.006***	-0.306	-3.019
F		0.19***	
R <sup>2</sup>		0.69	

\*p<0.05 \*\*p<0.01 \*\*\*p<0.001

## V. 결론 및 제언

사회복지 수혜대상 가운데 빈곤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 빈곤가족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 빈곤이나 상대적 빈곤 그리고 주관적 빈곤을 해결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정부기관 및 지역복지 단체의 재정부족, 제한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빈곤장애아동 가족의 인적·물적 보유자원의 결핍 등이 이들 가족으로 하여금 빈곤탈피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열악한 현실에서 빈곤장애아동 가족이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이들 가족이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빈곤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및 관련단체의 조정과 이들 가족의 의지가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빈곤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어느 한 측면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가운데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아동 가족의 빈곤문제는 단일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빈곤의 특성상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들 가족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시사하듯이 가족성원 가운데 장애아의 출현은 장애자녀양육 및 보호를 전담하기 위해 직업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으로 절대적 빈곤 뿐 아니라 주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심화시키므로 단순한 자원이전의 현금보조 정책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경제적 지원방안은 빈곤장애가족에게 직접적으로 공공부조나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장애자녀를 위한 교육이나 치료를 보조하고 간접적으로는 소득세나 간접세를 감면시켜 소득적정도를 높여 주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빈곤장애아동 가족에게 지급되는 생계보조수당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빈곤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대표적인 소득보장정책은 생계보조수당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중증 및 중복지장애인에게 1인당 월 3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급여대상과 급여액이 제한적이며 지원액의 규모가 객관적인 근거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예산에 따라 행정 편의적으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정소연, 1995). 그리고 이러한 지급은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은 우리 사회에서 자녀가 장애인임을 노출하고 얻는 불이익 즉 편

견, 소외, 부정적인 낙인 등을 감소하기에 너무 적은 금액이므로 보조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장애아동 가족이라 할지라도 소득계층별로 분류하고 우선지원대상 가족에게 가족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차별화 된 지원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고 급여액도 현실적인 차원에서 생계보장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적 지원은 국가예산이나 다른 여타제도 및 정책과의 균형, 노인·여성·아동 등 장애인 외에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생계보장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데에는 장기간에 걸친 계획과 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빈곤장애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지원은 집단의 특성상 다른 어느 집단보다 우선되어야 하므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가족성원 가운데 장애인을 포함함으로써 겪게 되는 사회적 편견을 비롯한 많은 부정적인 시각들은 모든 장애가족에게 상당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고 문제경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빈곤장애가족의 경우 그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스트레스는 더 심각하고 그로 인한 가족갈등이 치유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들 가족의 상대적 빈곤감을 더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빈곤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를 약화시키므로 이들에게 가족갈등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전문적 가족상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빈곤가족 뿐 아니라 모든 장애아동 가족의 부모들이 차이는 있지만 심리적·정서적 문제에 직면하여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거나 안정감이 결여된 상태에 있으므로 임상적인 상담과 치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 가족이 보유한 잠재력을 인지하고 자신이 처한 문제에 대해 대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있는 그들에게 성취감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 관련 민간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단체들은 이들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이 자조집단을 형성하도록 도와줌으로서 서로에 대해 정서적 지지 및 정보의 장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비슷한 이해관계를 지닌 자조집단형성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기도 하지만 필요시 자신들의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키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하고 정서적·심리적 빈곤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장애아동 가족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시사하듯이 학력이 빈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정책이 빈곤정책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빈곤의 세습화를 끊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이라 할지라도 잠재능력이 있는 아동이나 치유 가능한 아동에게 적합한 특수



교육을 확대실시하고 장애아 부모에게는 장애아동의 교육과 관련하여 이들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인식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병행되어야 한다. 장애아동 교육 뿐 아니라 특히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빈곤가족의 탈빈곤과 동시에 장애아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데도 큰 몫을 하므로 빈곤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은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빈곤층은 다른 집단보다도 건강을 위협하는 더 많은 요인들에 노출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에 비해 질병을 앓고 있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다시금 빈곤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여 이른바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을 거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최소한의 의료만이라도 보장하려는 기본적인 국가정책이 의료보호제도이다. 이러한 의료보호 혜택이 빈곤장애아동 가족에게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게 지원되어야 하는 이유는 장애가 단시일에 치료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의료서비스의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시사하듯이 빈곤장애아동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장애자녀를 위한 추가비용은 전체소득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절대적 빈곤 뿐 아니라 주관적, 상대적 빈곤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빈곤장애아동 가족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여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충당하고 일상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지지체계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 앞서 언급된 경제적 지원 방안들은 자칫 빈곤장애아동 가족을 수동적으로 만들어 복지병의 근원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적 지원이 생산적 복지의 맥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소득보완을 위한 부업 프로그램과 생업자금 융자프로그램 등을 활성화시켜 스스로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기술이 부족한 가족성원들을 위하여 기술교육 제공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가계의 소득원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남숙. 1997. 청각장애아 어머니를 위한 사회사업적 원조방안,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영모. 1990. 한국빈곤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김성천. 1997.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사업 실천방법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33호.
- 정기원 · 권선진 · 계훈방. 1995.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소연. 1995.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우. 1995.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 Andrews, F. M. and S. B. Withey.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New York and London: Plenum Press.
- Garfinkel, I. 1990. "Reducing Insecurity: The Principle Objective of Income Transfer?." *Science*. 24, pp.17-18.
- Hagenaars, A. J. 1986. *The Perception of Poverty*. North-Holland.
- Lane, R. E. 1994. "Quality of Life and Quality of Person's a New Role for Well-being Measures". *Political Theory*. 22.
- Magrabi, F. M., Y. S. Chung, S. S. Cha, and S. Yang. 1991. "*The Economics of Household Consumption*."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Nussbaum, M. and A Sen. *The Quality of Life*. Oxford: Clarendon Press.
- Scanlon, T. 1993. "Value, Desire, and Quality of Life". M. Nussbaum and A. Sen (eds.), *The Quality of Life*. A study prepared for the World Institute for 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 of the United Nations University, Clarendon Press: Oxford.
- Sen, A. 1993. "Capability and Well-being". Martha Nussbaum and Amartya Sen (eds.), *The Quality of Life*, A study prepared for the World Institute for 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 of the United Nations University, Clarendon Press: Oxford.
- Slottije, D. J., G. W. Scully., J. G. Hirshberg and K. J. Hayes. 1991. *Measuring the Quality of Life Across Countries*. Westview Press.
- Townsend, P. 1979.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Allen Lane.